

第43次 ACPAC會議 結果 報告

管 理 課

제43次 ACPAC(Asia Cement Producer's Amity Club)이 지난 10월 26일~27일 양일간 필리핀 Cebu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7

개국 120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 회원 각국의 시멘트 수급동향과 업계동향에 대한 각국대표자의 설명이 있었

〈표-1〉 ACPAC회원국의 시멘트 수급실적 및 전망

(단위 : 천톤, %)

		한국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합계(전년비)		
KILN생산능력	95	56,000	97,574	24,365	28,960	10,265	25,010	8,600	250,774	102	
	96	56,848	97,574	24,845	34,420	10,749	26,610	10,700	260,898	104	
크링카 생산	95	51,810	88,600	20,450	29,030	10,200	21,028	8,600	229,718	104	
	96	52,000	88,600	20,930	32,009	10,600	26,610	9,600	240,349	105	
시멘트 생산	95	57,860	96,400	22,560	36,860	10,800	23,661	11,230	259,371	104	
	96	58,500	96,400	22,900	40,652	11,800	28,010	13,200	271,462	105	
수요	내수	95	53,017	79,400	22,500	34,334	10,800	23,376	11,439	234,866	105
		96	54,000	79,400	22,500	39,382	11,800	26,500	13,155	246,737	105
	수출	95	4,043	14,000	350	2,816		99	30	21,338	93
		96	4,000	14,000	500	2,800				21,300	100
	계	95	57,060	93,400	22,850	37,150	10,800	23,475	11,469	256,204	104
		96	58,000	93,400	23,000	42,182	11,800	26,500	13,155	268,037	105
수입	95	2,504	600	5,000	748	1,100	3,016	2,361	15,329	131	
	96	2,000	600	4,000	570	2,600	3,000	2,560	15,330	100	
국내소비	95	55,521	80,000	26,500	34,364	11,500	25,409	11,500	244,794	106	
	96	56,000	80,000	26,000	39,382	13,800	28,380	13,215	256,777	105	

(주) 시멘트생산에는 수출크링카, 수출·입에는 크링카 포함.

고 그에 따른 질의 응답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금번 ACPAC 본회의에서 발표한 각국의 시멘트 수급동향 및 업계동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한다.

1. ACPAC 會員國의 動向 綜合

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과 SOC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회원국들의 시멘트수요가 한국, 일본, 대만 이외는 10% 이상씩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일본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96년중 1,100만톤에 이은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중에 있어 이 계획대로 증설이 된다면 금세기 말까지는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국가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도 예상된다. 한편, 현재 각국의 공급 부족은 수입으로써 대처하는 한편,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꾀하고 있다.

2. ACPAC 會員國別 動向

일 본

20개의 시멘트사와 41개의 공장, 81기의 키른을 보유하고 연간 생산능력이 9,760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소비가 95년 8,000만톤에 그쳐 초과공급분을 수출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으며, 95년에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이 약 5% 감소하였다. 또한, 레미콘사가 5,000여개사에 이르고 있어 과당경쟁으로 내수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설비의 과잉으로 투자의 비효율화를 초래하였다.

96년 전망에 있어 시멘트생산은 9,640만톤, 수입 60만톤, 수출 1,400만톤, 내수 8,000만톤으로 95년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금세기 말까지도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내수의

급격한 증가나 하락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된다.

대 만

95년 시멘트생산은 2,256만톤에 국내수요가 2,650만톤으로 수입을 통한 수급균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입물량이 8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바 엔고의 영향으로 수입단가가 인상되어 시멘트 내수가격이 5월부터 8월까지 포장시멘트가 10%, 벌크가 12%나 인상(현지통화 기준)되었다. 그러나 국내수요가 94년부터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96년에는 1.9% 감소된 2,6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96년 8월에 완공될 Hualien(150만톤)의 1개 키른의 가동 등으로 시멘트생산은 2.9% 증가한 2,290만톤이 예상되어 수입량은 400만톤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94년 21.1%, 95년 18.0%의 높은 시멘트수요 증가율을 보여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부족분은 수입으로 대처하여 95년 수출은 83.1%의 감소를 보인 반면에 수입은 157.4%나 증가하였다. 96년에도 약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멘트 수요 증가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의 증가에 따라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증설을 추진, 96년에 160만톤 증설에 이어, 98년까지 대규모 추가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증설이 완료되는 98년 이후에는 시멘트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도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95년의 시멘트 내수는 9%의 GDP성장률과 약 15.5%의 건설부문 성장률, 주택개발사업의 추진, 그리고 계속되는 SOC확충 등으로 14.5

% 증가한 1,07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부족분을 증설과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다. 수 년간 큰 폭의 수요증가에 따라 96년 수입의 경우 250만톤의 크링카, 6만톤의 시멘트(총 256만톤)의 수입이 불가피하며 증설계획으로는 95년 180만톤 증설을 필두로 96~97중 310만톤의 추가계획하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내수증가추세가 이어지면 공급부족의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이 지속될 듯하다.

태 국

95년 건설부문 성장률이 10%에 달함에 따라 시멘트 내수도 18.2%나 증가하였는 바, 최근 몇년동안 시멘트 내수가 10% 이상씩 신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96년 시멘트 내수도 14.6%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속한 내수성장이 생산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증설과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증설의 경우 95년의 230만톤 증설에 이어 96년중 540만톤의 증설계획이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추가 계획이 수립돼 있다. 증설을 하고서도 부족한 공급물량은 수입(95년에 75만톤)을 통하여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필 리 핀

정부의 꾸준한 경제정책의 수행과 지속적인 SOC에 대한 투자로 95년 건설부문 성장률이 10.7%에 달함에 따라 95년 시멘트소비는 20%나 증가하였다. 시멘트소비 증가추세가 200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필리핀 정보는 내다보고 있다. 폭발적인 수요에 따라 증설과 수입을 통하여 수급안정을 꾀하고 있는데 수입의 경우 95년에 14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96년에도 136% 신장된 260만톤의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멘트 수입은 95년에 일본, 멕시코, 러시아 등에서 들여와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하였으며 96년에도 이들 국가에서 들여올 예정이다. 증설계획의 경우 95년의 32만톤에 이어 99년까지 대규모의 추가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금세기말에는 내수를 충당하고도 여력이 있어 수출국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